

## 특집 편집기



오 승 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1995년 9월4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기술 포럼에서 오라클사는 가격이 \$400 정도이면서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현재의 PC 기능을 네트워크로 확장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주장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 시장이 급속히 신장하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조한 PC와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이 부각되었다. 선 마이크로사의 UNIX 기반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기업체의 인터넷 환경을 점유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텔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네트워크용 윈도우스NT를 개발함으로써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PC를 네트워크 컴퓨터(Network Computer : NC)라 통칭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을 점유할 그 모양이나 성능에 대한 규격은 불확실하다. 네트워크 컴퓨터를 오라클사 계열은 NC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열은 NetPC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NetPC는 기존 PC의 윈도우스와 펜티엄 코어를 고수한 아키텍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네트워크 컴퓨터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동향과 국내 산학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기술 연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특집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첫 번째 원고에서는 본 인과 동료 교수들이 '97년 9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가상 네트워크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된 선진국의 네트워크 컴퓨터 개발 현황과 핵심기술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원고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한 멀티미디어 PC 개발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근간으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휴대용 컴퓨터를 소개한다. 향후 NC의 한 형태가 될 이동형 PC에 대한 분석을 민병기 박사께서 제시하였다. 세 번째 원고는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한된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코자 하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형태의 NC를 신동훈 박사께서 다루어주셨다. 현재 NC를 개발하여 국내 대학교에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LG 전자의 안승권 박사께서 NC 구조를 네 번째 원고에서 다루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염현영 교수께서 네트워크 컴퓨팅과 NC에 대하여 원고를 작성해 주셨다.

기고해 주신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특집이 네트워크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